

믿음과 차별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교우의 아버님 장례식 때문에 1시간 반을 운전하여 다녀 왔습니다. 교우의 직계 가족이 소천한 경우, 교회에서는 조화를 보냅니다. 꽃집에 주문을 넣으니, 너무 멀어서 배달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제 차에 조화를 싣고 그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 입구에 주차하고 꽃집 주인이 일러 준 대로 조화를 들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적당한 자리를 잡고 조화를 거치대 위에 세우는 동안에 국화 꽃잎 몇 개가 카페트에 떨어졌습니다. 그곳에 있던 어떤 분이 그것을 보더니 꽃잎을 가리키며 "저거 주세요"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저는 화환을 단단히 거치해 둔 후에 바닥에 앉아 떨어진 꽃잎들을 손으로 주워 코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 줌고 일어났더니 우리 교회 교우가 저를 보고는 "목사님, 이렇게 멀리 오셨어요?" 하면서 다가옵니다. 그 순간, 저에게 꽃잎을 주으라고 지시했던 그 사람이 움찔 놀라면서 난감해 하십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그분은 저에게 다가와 "왜 목사님이 꽃을 배달하고 그러세요?"라고 농을 던지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제가 그런 대접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그분의 태도 때문입니다. 꽃집 배달원은 그런 대접을 받아 마땅하단 말입니까? 왜 목사는 달리 대접 받아야 합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에 눈 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는 것도 불신앙이요, 어떤 사람을 낮추어 보고 무례하게 대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란 누구를 대하든 동일한 존경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무시 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더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을 교회 안에서 먼저 실천하고 바깥 사회에서도 실천해야 합니다.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은 식당 직원들이 가져야 할 마음 가짐이지 손님들이 가져야 할 마음 가짐이 아닙니다. 손님들이 그런 마음 가짐을 가지니 식당에서 시중드는 분들을 종 부리듯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다음에 음식 앞에서 고개 숙여 경건하게 기도한다면, 시중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실제로 한인 식당에서 일해 본 분들은 그런 일을 자주 겪는다고 합니다. 교인들일수록 더 까다롭고 더 무례한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식당에 몰려 오면 종업원들이 서로에게 미룬다고 하지요.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 주신 '양과 염소의 비유'(마 25:31-46)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에서 무시 당하고 버림 받은 사람에게 행한 것이 바로 당신에게 행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진실한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사회적으로 낮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신분에 있어서 불안한 사람들을 대할 때 더 조심하고 더 존경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부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최대의 존경심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8일 주일 설교
“평화의 능력과 평화의 비전”
Power of Peace and Vision of Peace

- 찬송** 찬송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105장(통105)
- 기도**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이사야서 11장 1-9절을 읽습니다. 메시아 시대에 임할 평화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 말씀묵상** 한 사람이 설교 말씀을 요약하여 발표합니다. (10분)
- 말씀나눔**
 - 질문 전체를 읽어 주고 자신에게 와 닿는 질문에 답하게 하십시오.
 - 전체 나눔 시간이 90분을 넘지 않게 하십시오.
 - 1.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으면 한가지만 나누어 주십시오.
 - 2. 당신은 '내면적 평화'를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내면적 평화의 능력이 당신의 인간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 3. 교회로 모여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고 바깥 사회에서 평화를 확산시키는 일에 대해 당신 자신을 평가해 보십시오. 잘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 기도**
 1. '평화의 능력'과 '평화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도록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2. 우리 교회가 평화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 중보기도**
 1.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으로 중보하십시오.
 2. 지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의 소식을 나누고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 찬송/헌금** 찬송을 부르며 헌금을 드립니다.
"평화의 기도"(아씨시의 프랜시스코)
- 주기도문** 광고 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난 설교문이 필요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묵상 안내
www.koinonia2019.com



수 요 예 배

오후 8시 / 분당
인도: 김영봉 목사



찬양과 기도

강해

찬양과 기도

김영봉 목사

예수의 비유

다같이

김영봉 목사

김영봉 목사

다같이

사역자 연락처

직책	이름	전화	이메일
담임목사	김영봉	703-850-9447	bong320@gmail.com
영어권 담당목사	Danny Chung 대니정	213-210-4057	dannychung50@gmail.com
어린이 담당 디렉터	Alex Kim 알렉스김	571-201-0701	munkyong@hotmail.com
English Worship Pastor	HK Kim 김형균	703-346-0001	hkkim122@gmail.com
사무행정	윤문경	703-944-7827	dalpool@hotmail.com

1. '하루 한 말씀' 이배 주 진도는 **이사야서 9, 11, 35장** 및 **말라기 2, 3, 4장**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진도를 따라 '하루 한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영적훈련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www.koinonia2019.com에 접속하시면 본문에 대한 간단한 해설과 묵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2.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속장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속회 사역부원들께 그리고 참여해 주신 속장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참석하지 못한 속장님들은 최연서 속회사역장님께 책을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3. 오는 토요일(14일) 오전 8시에 기획위원회로 모입니다. 기관장, 사역장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다음 주(15일) 예배 후 3시 45분부터 목회위원회(위원장: 한의홍)로 모입니다. 위원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19년 한 해 동안 라온서림에 보내주신 교인분들의 성원과 격려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찻쌀떡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2019년 한 해 동안 책을 10권 이상 빌려가신 교우님들께 라온서림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으니, 예배 후에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6. 담임목사의 신간 서적을 구입하기 원하는 분들은 윤문경 형제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온 서림에서 대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위로하는 마음으로> (15달러) <나는 왜 믿는가> (20달러)
7. 여선교회에서는 기금 모금을 위해 한국산 립스틱을 판매합니다(3 for \$10).. 또한 매실고추장도 앵콜판매 합니다.(\$15)

- ❖ 연말연시 특별 예배 안내
22일(주일) 오후 3시 헨델의 '메시아' 연주
25일(수요일) 오전 10시 성탄일 예배(연합예배)
수요 저녁 예배 없음
29일(주일) 예배 후 전교인 타운홀(새해 예산 보고, 목회 보고)
31일(화) 오후 8시(연합예배)
1일 수요 저녁 예배 없음
6일(월)-11일(토) 새해맞이 새벽기도회

- ❖ 교우동정: 남아공에서 선교하시는 장용석/강준이 선교사 부부께서 휴식차 귀국하셨습니다.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번호: 301-793-0319)

- 교우 모두가 '삼중 사귄'(Triple Communion)에 있어서 깊어지도록
- 센터빌연합감리교회, 와싱턴한인교회 그리고 체스터브룩연합감리교회를 위해
-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멕시코(김승석 선교사), 남아공(장용석/강준이 선교사), 탄자니아(박윤석 선교사), 기니(Joshua Kim 선교사)
- 육신의 질병 혹은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 연합감리교회의 부흥과 갱신을 위해, Lewis 감독님을 위해
- 한국과 미국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일예배

- **한어 성인예배(KS)**
오후 2시/ 본당
중보기도: 오후 1시 20분 / 208호
- **Youth & ES**
오후 2시/ ROC
- **어린이 (Children)**
오후 2시 / 213-215호

수요예배
수요일 저녁 8시 / 본당

새벽기도회
토요일 오전 6시 / 본당
다른 요일은 개인 기도로 대신합니다

12월 하루 한 말씀 진도표

9일(월)	10일(화)	11일(수)	12일(목)	13일(금)	14일(토)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35장	말라기 2장	말라기 3장	말라기 4장

www.koinonia2019.com에서 매일 묵상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일 친교

날짜	담당속회
오늘	살롬(오영석)
12월 15일	에바다속(윤두희)
12월 22일	나눔속(조용석)
12월 29일	사랑속(성호진)

회중기도와 성경봉독

날짜	회중기도	성경봉독
다음주	장돈식	이애란
12월 22일	ES	ES
12월 29일	주규리	김은수
1월 5일	조관식	오은미

안내와 헌금 위원

12월 - 추영근/이승민 1월 - 양승엽/박수현

***주일 설교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에
WDCT1310 기쁜소리방송을 통해 방송됩니다.**

(12월 1일)

한어성인예배(KS)	158	주일학교	\$18
영어예배(ES)	24	주일헌금	\$225
청소년예배(Youth)	31	주정/월정	\$3,795
교회학교(Sunday School)	19	십일조	\$3,871.46
주일예배 출석 합계	232	선교헌금	\$100
		감사헌금	\$800
수요예배(12/4)	30	UFO	\$60
주간예배 출석 합계:	262	합계:	\$8,869.46

제자반

- **속장사랑방**(인도: 김영봉 목사)
매달 첫째 토요일 오전 8시 / 217호
매달 둘째 화요일 저녁 7시 30분 / 217호
- **여성성경필사나눔반**(인도: 도현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213-215호

2019년 12월 8일 | 대림절 둘째 주일

본당 / 2:00pm

사회: 김영봉 목사

지휘: 최인달

피아노: 이애령 / 오르간: 김성은

전주 Prelude	오르간	
촛불 점화 Lighting the Candles	말은이	
● 대림절 촛불 점화 Lighting the Advent Candles	말은이	
● 경배 찬송 Hymn of Invocation	“하늘에 계신” 635장 Our Farther, Which Art in Heaven	다같이
●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다같이
● 개회찬송 Hymn of Praise	“오랫동안 기다리던” 105장(통105) Come, Thou Long-Expected Jesus	다같이
● 신앙 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다같이
회중 기도 Congregational Prayer		김미연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이사야서 11장 1-9절 Isaiah 11:1-9	장철환
찬양 Anthem	영화롭도다	성가대
설교 Sermon	“ 평화의 능력과 평화의 비전 ” Power of Peace and Vision of Peace	김영봉 목사
● 송영과 봉헌 Doxology & Offering	“나의 생명 드리니” 213장(통348) 1절 Take My Life, and Let It Be	다같이
목회 기도 Pastoral Prayer		김영봉 목사
● 결단의 찬송 Hymn of Commitment	“ 평화의 기도 ”(아씨의 프랜시스코)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김영봉 목사
인사와 광고 Greeting & Announcements		사회자

“Sanctuary”

- 표에서는 일어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up as you are able.
헌금은 예배당 안에 있는 헌금접시에 드리십시오.
Please place your offering into the trays in the chapel.